

喘息의 原因에 對한 文獻的 考察

(內經을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漢醫科大學

李 珩 九

I. 緒 論

呼吸器系 病變의 一種으로서 類見되고 있는 喘息의 原因에 對하여 研究 考察하여 보았다.

原因에 있어서는 「身體가 平素부터 虛弱 하다가, 肺에 伏痰이 있다든가, 或은 風寒에 外感된데다 表散하지 못하든가, 或은 風寒에 外感된데다, 精神情緒 및 飲食 等의 異狀이 겹치면 發病하게 된다」는 等 여러가지의 原因이 있으며, 또한 各 서적마다 그 說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이들 各 서적이 그 說을 달리하고 있다하더라도 理論面에 있어서는 內經을 轉寫 또는 引用하고 있다.

이에 演者는 內經에 나타나 있는 喘息의 原因에 對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II. 本 論

喘息의 原因으로 于先 外因을 들 수 있는데 外因으로는

1) 「暑氣로 因하여 煩燥狀態에 빠지고 喘息症이 생긴다」.

이는 暑氣가 닿으면 陽氣는 体外로 나가야 하는데 도리어 体内에 머물면 煩燥한 狀態가 되어 喘症을 發하게 된다.

2) 「秋脉이 不及한 즉 사람으로 하여금 喘症을 發하게 한다」.

이는 가을은 肺가 旺盛한 때이며 그 脉狀은 浮한 것이다. 脉이 太過하며 外表部에 病이 있고 이때의 症狀은 氣가 逆하고 背痛이 있고, 不及하면 体内에 病이 있는 것으로 이때의 症狀은 숨이 거칠고 呼吸量이 적으며 기침을 하게 된다.

3) 「賊風虛邪가 犯하게 되면 陽이 受之하게 되고, 陽이 受之한즉 六府에 入하게 되며, 六府에 入하게 되면 몸에 熱이 나고 不時로 嗜臥하며 喘症을 發한다」.

이는 賊風虛邪가 侵犯하게 되면 陽分에 侵入하게 되고 陽分에 侵入하게 되면 六府에 入하여 身熱하고 不時로 嗜臥하며 喘症을 發하는 것이다.

이는 風寒으로 因한 喘息症이 아닌가 사료된다.

4) 「邪가 肺에 있게 되면 病이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症狀으로 皮膚痛과 寒熱上氣, 汗出 및 喘息과 欬하면 肩背가 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風邪가 入肺하여 發生된 病으로서 皮膚痛과 寒熱上氣와 喘病을 發하고 汗出하며, 기침을 하게되면 肩背가 들먹거리게 되는 것이다.

風寒喘으로 사료된다.

5) 「寒氣가 侵入되면 脉이 不通되고 脉이 不通한 즉 氣로 因한 것으로 喘症을 發하게 된다」.

이는 寒氣로 因하여 脉이 觸傷되어 不通하므로 喘症을 發하는 것으로 脉이 不通하여 氣도 不通한 것이다.

6) 「内外가 모두 熱한즉 喘症을 發한다」.

이는 熱로 因하여 氣가 傷하여 喘症을 發하는것

1) 因於暑汗煩則喘喝 P.29 《生氣通天論》

2) 秋脉者肺也 其不及則令人喘呼吸少氣而欬 上氣見血 下聞病音 P.78 《玉機真藏論》

3) 犯賊風虛邪者 陽受之 陽受之則入六府 入六府則身熱 不時臥上為喘呼 《太陰陽明論》 P.105

4) 邪在肺則病 皮膚痛 寒熱 上氣喘汗出 欬動肩者 《靈樞 五邪》 P.322

5) 寒氣客則脉不通 脉不通則氣因之故 喘動應手矣 《舉痛論》 P.126

6) 外内皆熱則喘而渴 故欲冷飲也 《病論》 P.117

으로 渴症을 隨伴하여 飲水하게 된다.

內因을 考察하여 보면 7) 「喜怒憂思悲恐驚이라는 人體의 感情을 말하는 七情, 飲食傷, 勞倦傷」 등으로 喘息을 誘發하는 內因으로는 8) 무릇 사람의 驚恐과 表勞動은 모두 變化하게 되는데 이것이 夜行하게 되는 즉 腎에서 喘症이 發하여 滯氣가 肺를 병들게 하고, 墮恐하게 되면 肺에서 喘症을 發하여 滯氣가 脾를 害하게 하고, 驚恐하게 되면 肺에서 喘症이 發하여 滯氣가 心을 傷하게 하며, 度水跌仆하면 腎과 骨에서 喘症을 發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 勇者는 氣가 行하여 病들지 않지만 怯者는 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夜間에 遠行하게 되면 喘症이 腎에서 發하여 邪氣가 肺를 發病케 하고, 墮落하거나 恐怖에 사로 잡히면 喘症이 肝에서 發하여 邪氣가 脾를 害하며, 驚恐하면 喘症이 肺에서 發하여 邪氣가 過度하면 心을 傷하고 河水를 渡涉하며 跌仆하면 喘症이 腎과 骨에서 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勇敢한 者는 氣가 充滿하므로 發病이 안되지만 怯弱者는 氣가 萎縮되므로 邪氣가 侵入하여 發病 되는 것이다.

9) 「甘味를 과잉섭취하며 心氣를 發하고 喘症이 생긴다. 이는 甘味가 發散의 作用이 있어 發散되어야 하나 過食하게 되면 發散되기 전에 축적되어 喘症을 發하게 된다. 이는 過食으로 因한 飲食傷으로 사료된다.

10) 「恒常 方食으로 食事を 하고 他食을 먹지 않으면 腹中에 늘 腸鳴이 있고 胸喘이 있으며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이는 항상 적절한 食事を 하고 飲食의 禁忌를 지켜야 하는데 方食만 먹고 他食은 먹지 않으면 腹中에서 腸鳴이 나며 가슴의 氣가 上衡하게 되면 괴롭고 숨이 가빠서 오래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11) 「肝脉이 搏擊하고 長하며 色이 푸르지 않으며 마땅히 墮落損傷으로 因하여 痰血이 脇下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喘逆을 發하게 한다.

이것은 墮落損傷으로 因한 痰血이 脇下에 停留하며 血氣가 肺로 上重하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喘逆을 發하게 하는 것으로 不內外因에 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以上과 같이 喘症을 誘發하는 外因, 內因 및 不內外因으로 考察하였고 肺로 因하여 發하는 喘症을 考察하려 한다.

12) 「肺에 病이 들면 喘息과 鼻脹을 發한다.

五官의 狀態를 봐서 五臟이 機能을 알 수 있는데 肺病의 증후는 鼻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呼吸이 거칠어지고 코가 붓는 症狀을 나타내는 것이다.

13) 「氣가 肺에서 亂하게 되면 喘喝이 甚하여 俛仰하며 手로 胸을 按하며 呼하게 된다.

이는 肺臟에서 機能이 混亂되면 呼吸이 困難하여 숨결이 가빠지면 喘喝이 甚하여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숨을 쉬려고 하는 것이다.

14) 「手太陰肺經의 是動病에 肺가 脹滿하고 喘咳하며 所生病에 嗽하며 上氣하고 喘渴하게 된다」

이것은 手太陰肺經이 外感을 받으면 肺가 脹滿하게 되며 喘咳가 나타나며 內傷을 받으면 嗽上氣等を 수반하면서 喘渴하게 되는 것이다.

15) 「肺氣가 實하게 되면 喘喝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며 俛仰하게 된다. 이것은 肺가 實하여 重肺하기 때문에 喘喘하며 가슴이 답답하여 자꾸 엎드릴려고 하는 것이다.

16) 「氣가 有餘하게 되면 喘欬하면 上氣症을 發한다. 이것은 肺氣가 有餘 즉 實한 것으로 喘欬와 上氣를 發하는 것이다.

17) 「肺가 小하면 少飲하므로 喘喝等の 病이 없는 것이다. 肺가 大하면 多飲하므로 病이 있으나

7) 安秉國: 漢醫學總論, 病因의 復合性, 慶熙大, 1974, P. 88

8) 凡人之驚恐表勞動皆爲變也 是以夜行則 喘出於腎 搖氣病肺 有所隨恐 喘出於肝 搖氣害脾 有所驚恐 喘出於肺 搖氣傷心 度水跌仆 喘出於腎與骨 當是之時 勇者氣行則已 怯者則着而爲病也 <經脈別論> P. 87

9) 味過於甘 心氣喘滿 色黑 腎氣不衡 <生氣通天論> P. 32

10) 常食方食 無食他食 腹中常鳴 氣上衝 胸喘 不能久立 邪在大腸 <靈樞四時氣> P. 321

11) 肝脉搏擊而長 色不青 當病墮落 因血在脇下 令人喘

逆 <脈經微論> P. 71

12) 肺病者 喘息鼻脹 <靈樞, 五閱五使> P. 336

13) 氣亂于 肺則俛仰 喘喝 按手以呼 <靈樞, 五亂> P. 333

14) 肺手太陰之脈 是動則病 肺脹滿 膨膨而喘欬…… 所生病者 欬上氣 喘渴 煩心胸滿 <靈樞, 經脈> P. 306

15) 肺氣虛則鼻塞 不利少氣

實則喘喝 胸分仰息 <靈樞, 本神> P. 303

16) 氣有餘則喘咳 上氣 不足則息利 少氣 <調經論> P. 179

17) 肺小則少飲不病 喘喝 <靈樞, 本藏> P. 344

小하면 病이 없는 것이다.

18) 「肺熱病에 熱爭하게 되면 喘欬하고 痛症이 胸膺背를 따라 發하며 不得太息하게 되는 것이다」

肺熱이 入胃하여 胃熱이 上升하게 되면 身熱이 나고 舌上이 黃色을 띠게 되며, 肺는 隔上에 있고 氣는 胸膺을 主하고 背는 胸中之府가 되므로 喘欬하게 되면 痛症이 胸膺背에 走하게 되고 不得太息하게 되는 것이다.

19) 「肺痺가 되면 煩燥하고 胸滿하면서 喘息하며 嘔吐를 發한다」. 이것은 手太陰之脉이 環循胃口하므로 煩滿하며 喘而嘔하는 症狀를 發하게 되는 것이다.

20) 滯氣가 喘息을 發하면 痺症이 肺에 연결되어 있다. 滯氣는 氣가 妄行하는 것으로 각기 藏이 所主하는 것을 따라 入한 것을 痺라 하는데 喘息을 發하는 것은 肺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1) 「肺癰는 喘息하고 兩脇가 脹滿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 肺로 因하여 發하는 喘息을 살펴보고 다음은 陰陽病理學的인 側面으로 考察해 본다.

22) 「陽이 勝한 즉 身熱하게 되고, 이때 腠理가 閉하게 되면 喘症을 發하게 된다」. 이것은 밖으로 表散되지 못하고 体内的 熱(陽)이 머물러 喘症을 發하게 되는 것이다. 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腠理가 閉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23) 「陰氣가 內에서 爭하고 陽氣가 外에서 擾한 즉 塊汗未藏하고 四逆而起하는데 起則熏肺하여 사담으로 하여금 喘鳴症을 發하게 된다」.

이는 營衛의 氣가 往來하지 않고 熏肺하는 까닭으로 喘鳴症이 發하게 되는 것이다.

24) 振埃한 陽氣가 逆上하여 胸中이 滿하여 肩息하게 되고 大氣가 逆上하여 喘喝이 伏하고 病惡埃煙觸하고, 숨을 헐떡이게 된다」. 이것은 陽氣가 모두 올라가서 가슴이 충만되므로 괴로워서 어깨

로 숨을 쉬고 호흡을 맡은 宗氣가 갑자기 위로 치밀어 숨결이 거칠고 목소리가 쉬며, 안절부절하여 편안히 누워 있을 수가 없으며 먼지나, 연기를 목이 에어 숨도 잘 쉬기 곤란한 者를 치료하는데 쓴다.

25) 「欬嗽하고 上氣하며 喘息하는 것은 陰氣가 在下하고 陽氣가 在上해야 하는데 모든 陽氣가 浮하여 依存할 곳이 없어서 發하는 것이다」.

이것은 陽氣가 浮하여 依存할 곳이 없어서 發하는 喘症으로 陰虛喘으로 사료된다.

以上 陰陽病理學的인 面으로 考察하였고 다음은 肺를 除外한 他臟器의 病變으로 因한 喘과 五臟의 關係를 中心으로 考察하여 본다.

26) 「腎病者는 腹이 腫大되고 脛이 腫하며 喘欬症을 發한다」. 이것은 腎의 經絡이 足趾에서 起하여 上循膈하여 上入腹하므로 腹大脛腫을 發하고 上行하여 入肺하면 腎邪가 攻肺하기 때문에 喘欬症을 發한다.

27) 「足少陰腎脈의 是動病에 欬唾하며 血이 묻어나오고 喘症을 發하게 된다」. 이는 足少陰腎經의 外感病으로 喘症을 發하여 巫而欲起하게 되는 것이다.

28) 「氣滿하고 胸中喘息하는 데는 足太陰 脾經을 取한다」. 氣滿하고 胸中喘息하는데 足太陰 脾經을 取하는 것으로 보아 病根이 脾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9) 「中熱하고 喘症을 發하는 데는 足少陰 腎經을 取한다」. 이것도 病根이 腎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0) 「腹이 滿大하고 大便이 不利하며 腹이 滿大한 것이 胸膺으로 전파되어 喘喝症을 發하게 되는 데는 足少陰 腎經을 取한다」. 이것은 病根이 腎에 있으면 腹大하면서 大便이 不利하면서 喘喝을 發하게 되므로 足少陰腎經을 取하는 것이다.

18) 肺熱病者……熱爭則喘欬 痛走胸膺背 不得太息……(刺 熱論) P.109
 19) 肺痺者煩滿喘而嘔(痺論) P.136
 20) 滯氣喘息 痺聚在肺(痺論) P.136
 21) 肺之壅 喘而兩脇滿(大奇論) P.147
 22) 陽勝則 身熱 腠理閉喘(陰陽別論) P.42
 23) 陰爭於內 陽擾於外 塊汗未藏 四逆而起 起則熏肺 使人喘鳴(陰陽別論) p.49
 24) 振埃者 陽氣大逆上 滿乎胸中 憤肩息 大氣逆上 喘喝生伏 病惡埃煙觸 不得食(靈樞刺節真邪) p.371

25) 嘔欬上氣喘者 陰氣在下 陽氣在上 諸陽氣浮 無所依從 故嘔欬上氣喘也(脈解) p.150
 26) 腎病者 腹大脛腫 喘欬 身重(藏氣法時論) p.91
 27) 腎足少陰之脉 是動則病……欬唾則有血 喝喝而喘 坐而欲起……(靈樞, 經脈) p.309
 28) 氣滿 胸中喘息取足太陰(靈樞, 熱病) p.326
 29) 中熱而喘 取足少陰(雜病) p.327
 30) 腹滿 大便不利 腹大亦走胸膺 喘息喝喝然 取足少陰(靈樞, 雜病) p.327

31) 「무릇 不得臥에 臥한즉 喘症을 發하게 되는 데 이는 水氣가 侵犯한 것이다. 水라는 것은 津液을 循行하여 흐르는 것인데 腎이 水를 藏하는 것이므로 腎이 臥와 喘症을 主하는 것이다. 이것은 不得臥에 臥한 즉 喘症을 發하면 水氣로 因한 病變인데 腎이 水를 藏하므로 臥症과 喘症 모두 主하는 것이다.

32) 「頸脈이 動하고 喘欬症이 發하면 水로 因한 것이다. 水氣가 上逆하게 되면 肺熱을 받아 陽氣가 逆上하게 되므로 頸脈이 動하게 되며 喘欬症을 發하게 되는 것이다.

33) 「水病에 下로는 脰腫하고 大腹이 腫하며 上으로 喘症을 發하게 되는 것이다. 水氣가 腎(下)에 머무르면 腹에서 足에 이르기까지 浮腫이 發하며, 上(肺)로 入하면 喘症을 發하게 되는 것이다.

34) 「上喘은 水氣로 因하여 發하는 것인데 陰氣가 下하여 다시 上한즉 邪가 臍間을 犯해서 된 것이다. 臍이란 脾를 말하며 臍間 胃를 지칭하는 것인데 邪가 脾胃之間을 犯하면 水氣가 喘症을 發하게 되는 것이다.

35) 「病이 心脉에 來하면 喘喘이 連屬하여 發하게 된다. 이는 心脉의 病變으로 오는 喘症이라 할 수 있다.

36) 「心痺는 脉이 不通하게 되는데 煩하면 心下가 鼓하고 갑자기 上氣하면서 喘息을 發하고 噎乾하게 되며 자주 트림을 한다. 이것은 經脉의 흐름이 나빠져서 가슴이 답답하게 되고 따라서 명치 부근이 두근거리며 갑자기 氣가 上逆하여 숨결이 거칠게 喘症을 發하며 흔히 트림을 하게 된다.

37) 「腸痺는 자주 물을 들이키나 不得小便하는 것으로 中氣 喘爭하면 때때로 殖泄을 發하게 된다. 腸痺는 물을 자주 마시지만 小便이 잘 안나오면서 뱃속이 腹鳴하면 泄瀉를 하게 된다.

38) 「邪氣가 手陽明大腸經에 侵入하게 되면 사

람으로 하여금 氣滿하고 胸中喘息하게 되고 胸中이 熱하게 된다. 手陽明大腸經의 순행부위가 入缺盆하여 絡肺하고 其支者가 上行頸하므로 氣滿, 胸中喘息과 胸中熱의 症狀을 發한다.

39) 「癩疾을 시작하여 引口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喘, 悸의 症狀이 있는 者는 手陽明大腸經과 手太陽小腸經을 관찰하여 左側이 強한 者는 右側을 瀉血하고 右側이 強한 者는 左側을 瀉血한다.

이는 癩疾의 始發에 引口, 悸의 症狀과 함께 喘症을 發하는 것이다.

40) 「陽明脉이 厥한즉 喘症을 發한다. 陽明脉은 胃脉을 말하는 것으로 厥하면 喘而惋하는 症狀을 나타낸다.

41) 「陽明脉이 厥逆하게 되면 喘欬하고 몸에 熱이 나게되며 자주 놀라고 코피를 쏟으며 嘔血하기도 한다.

陽明脉은 咽喉를 循行하여 缺盆에 入하여 下隔해서 屬胃絡脾하므로 厥逆하게 되면 喘欬身熱 善驚 嘔衄血 등의 症狀을 發하는 것이다.

42) 「五臟이 모두 堅固하지 못하면 使道가 不長하여 喘息 등의 暴疾을 發한다.

이는 五臟의 不和로 因하여 喘息을 發하는 것이다.

Ⅲ. 總括 및 考察

1.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본 喘症

1) 外因으로는 風寒燥濕暑火的 六淫을 들 수 있는데 喘症에 연관된 邪氣는 濕만 除外하고 모두 誘因이 되어 侵犯된 邪氣에 따라 特異한 症狀을 수반하면서 喘症을 發하였다. 따라서 喘의 原因으로 六淫이 큰 比重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內因으로는 七情, 勞倦傷, 飲食傷 등으로 大

31) 夫不得卧臥則喘者 水氣之客也 夫水者 循津液而流也 腎者水藏 主津液 主臥與喘也 《逆調論》 p. 115
32) 頸脉動 喘疾欬曰水 《平人氣象論》 p. 75
33) 水病 下為臌 腫大腹 上為喘呼 《水熱穴論》 p. 175
34) 上喘而為水者陰氣下而復上 上則邪客於臍間故為水也 《脉解》 p. 149
35) 病心脉來 喘喘連屬 其中微曲 曰心病 《平人氣象論》 p. 76
36) 心痺者脉 不通 煩則心下鼓 暴上氣而喘 噎乾善噦 《痺論》 p. 136

37) 腸痺者 數飲而出不得中氣 喘爭 時發殖泄 《痺論》 p. 136
38) 邪客於手陽明之絡 令人氣滿 胸中喘息而支 胸中忍 《經刺論》 p. 183
39) 癩疾始作而引口啼呼喘悸者 候之手陽明太陽 左強者攻其右 右強者攻其左 血變而止 《靈樞癩狂》 p. 323
40) 陽明厥則喘而惋 《陽明脉解》 p. 106
41) 陽明厥逆 喘欬身熱 善驚衄衄血 《厥論》 p. 142
42) 五臟皆不堅 使道不長 空外以張 喘息暴疾 《靈樞, 天年》 p. 352

別되나 喘症을 일으키는 內因은 七情과 飲食傷이 가장 比重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一定한 單味の 過食과 特定飲食에 對한 偏食이 喘症을 誘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食生活도 適宜하지 못하면 喘症을 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不內外因은 重視하지 않았고 喘症을 發하는 原因에 內因과 外因이 復合되어 發하는 것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2. 肺에 誘因이 된 喘症

1) 氣가 突하거나 有餘하면 喘症을 發하게 되는데 氣가 肺에서 亂하면 보다 重症의 喘症을 發한다.

2) 그 外에 喘症을 發할 수 있는 肺疾患은

ㄱ) 肺熱病에 熱爭한 것과

ㄴ) 肺痺

ㄷ) 肺脹

ㄹ) 肺癰

ㅁ) 手太陰肺經의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나타났다.

3) 따라서 肺로 因하여 發하는 喘症은 實症으로서 肺熱病 肺脹 肺癰 肺痺 등의 肺疾患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陰陽病理學的 誘因으로 發하는 喘症

1) 陽이 勝하거나 陽氣가 逆上하여 熏肺하면 喘症을 發하거나

2) 陽氣가 浮하여 依存할 곳이 없어서 發하는 喘症은 陽氣逆上으로 因한 陰虛한 所致로 發病된 것으로 大別된다.

3) 陰陽病理學的 誘因으로 發하는 喘症은 主로 陽氣가 逆上하여 陰陽의 平衡을 깨뜨려 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肺를 除外한 他臟器의 病變으로 因한 喘症과 其他 誘因으로 發하는 喘症

1) 肺를 除外한 他臟器의 病變으로는 腎의 病變이 많은 比重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足少陰腎經의 是動病 및 水氣로 因한 喘症이 大宗을 이루고 있으므로 針灸治療에 있어서도 足少陰腎經을 많이 取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 水氣로 因하여 나타나는 症候는 上으로 喘症을 發하고 下로는 水腫을 發하여 水氣로 因한 病을 쉽게 鑑別할 수 있었다.

3) 肺를 除外한 他臟器의 病變으로 腎의 病變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心病 大小腸病으로 喘症의 病機가 復雜함을 나타내고 있다.

4) 그 外에 癲疾의 始作이나 陽明厥症에 喘症을 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結 論

以上과 같이 喘息의 原因에 對해 內經을 中心으로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喘의 原因으로 外因이 큰 比重을 차지하지만 主로 內因과 復合되어 發하는 것으로 治療에 있어서도 復合된 原因을 究明하여 善治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喘症을 發하는 臟器는 肺와 腎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診斷에 있어서도 肺 腎에 重點을 두고 善診해야 한다.

3) 患者의 精神活動, 起居, 飲食 等과도 관련이 많이 있으므로 平素의 生活狀態도 診斷時 파악해야 한다.

4) 藥物의 処方에 있어서도 肺腎을 中心으로 하여 加減 活用하는 处方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 1) 金定濟: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74.
- 2) 安秉國: 漢醫學總論, 서울, 慶熙漢醫大, 1974.
- 3) 洪元植: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1971.
- 4)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譯, 서울, 高文社, 1973.
- 5) 洪元植: 黃帝內經素門解譯, 서울, 高文社, 1972.